



## 예측 트렌드 Trend Forecasting

콘텐츠 유형 : 스팟 리포르타주

취재 및 사진, 글 : 최성윤 (트렌드 리서처)



## ‘루디 보/ 마탈리 크라세/ 5.5 디자이너스 展’

현대 프랑스 디자인의 주역들

대구의 5월 중순 날씨는 이미 여름을 느끼기에 충분한 더위가 느껴졌다. 이 전시회를 보기 위해 서울에서 대구까지 오는 길이 지루하지 않았던 것은 프랑스 현대 디자인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와 설렘 때문이었다. 4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구경북디자인센터 4층에서 전시되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프랑스의 현대 디자인과 글로벌 디자인의 개념과 흐름을 조망해 본다.

### ‘프랑스 디자인의 과거, 현재, 미래’

프랑스 디자인의 현재의 대표주자 마탈리 크라세 (Matali Crasset),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신예 디자이너 그룹 5.5 디자이너스(5.5 Designers), 프랑스 디자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를 엿 볼 수 있는 루디 보(Ruedi Baur)의 실험적이며 창의적인 프로젝트 작품들이 전시된다.



사진 2> 전시 포스터

### ‘도시를 그리는 디자이너’- 루디 보(Ruedi Baur)

프랑스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손꼽히는 루디 보(Ruedi Baur)는 지역 아이덴티티, 전시 디자인, 도시 디자인 등을 기존 평면적인 작업의 영역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 접근방식으로 폭넓은 디자인 가능성을 개척하며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명성을 얻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도시의 미로 같은 도로체계에 한국적 정서를 대표하는 도자기를 매치 시켜 독특한 지역성을 상징화하는 작품을 통해 방향상실(disorientation)이란 현상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화병들 사이에 조성된 비좁은 통로로 만들어진 미로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며 간혹 막다른 길에 빠지기도 하고, 길을 되돌아 가야만 해서 반대 방향에서 오는 사람과 마주치기도 한다. 전시장 통로는 방향상실(disorientation)에 대한 시각자료와 텍스트들로 장식되어 있어서, 관람객이 이 테마에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해준다. 영상을 통해 전시되고 있는 그의 또 다른 작품 ‘Quartier des spectacles’에서는 라이팅 효과를 이용한 새로운 아이덴티티의 표현을 나타낸 작품으로 몬트리올의 새로운 나이트 컬처(Night Culture)를 형성한 프로젝트이다.



사진 3> 루디 보(Ruedi Baur)의 전시 작품 'Disorientation' (방향상실)  
사진촬영/ 페클레한국공식지사 LISOP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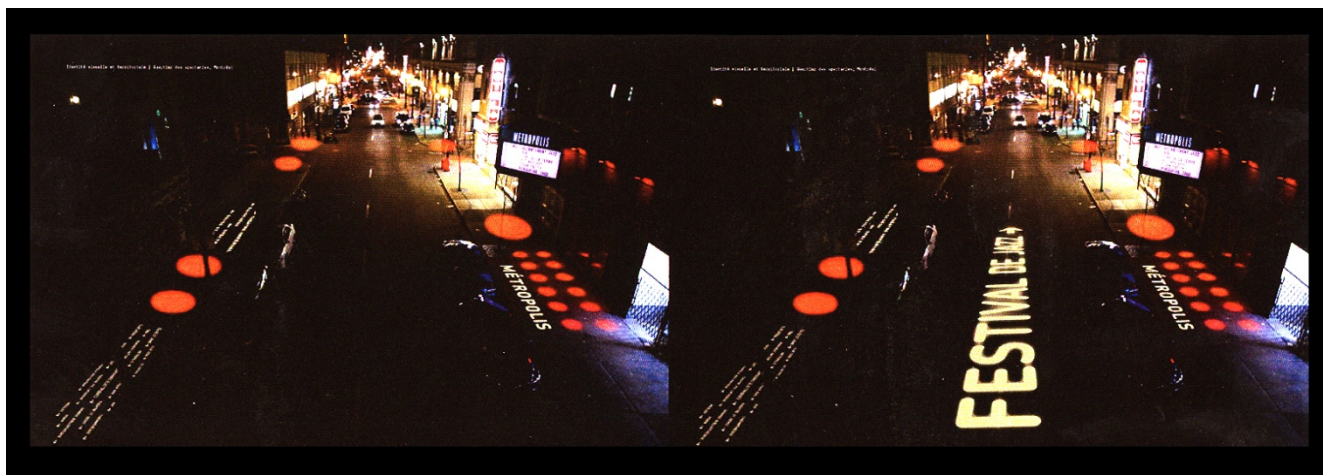


사진 4> 루디 보(Ruedi Baur)의 라이팅 효과를 이용한 작품 'Quartier des spectacles', Montreal

## ‘제2의 필립스탁’- 마탈리 크라세(Matali Crasset)

필립스탁(Philippe Starck)과 공동작업을 했던 마탈리 크라세(Matali Crasset)는 실용성과 예술성을 가미한 공간 디자인 재창조로 본인의 예술적 기운을 쏟아내는 디자이너이며 특히, 건축 인테리어분야에서 탁월한 감각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인 ‘Transnature’(자연에 머무르기)에서는 환경 생태학적인 구조 속에서 창조된 자연과 자연인을 연결하는 관계를 은유 하는 요소들로 구성 되어 있다. 마치 숲 속에서의 나무들과 유사한 빛을 방산하는 ‘Spotree’ 작품에서는 나무들뿐 아니라 \*리좀(rhizome)으로서의 뿌리줄기, 혹은 인간관계를 표현하는 듯한 느낌으로 환기된다.

### 리좀(Rhizome)이란?

철학용어로 사용되며 대나무의 뿌리 줄기처럼 줄기가 뿌리가 된 것을 말한다.



사진 6> 마탈리 크라세(Matali Crasset)의 전시 작품 ‘Transnature’ (자연에 머무르기)  
사진촬영/ 페클레한국공식지사 LISOP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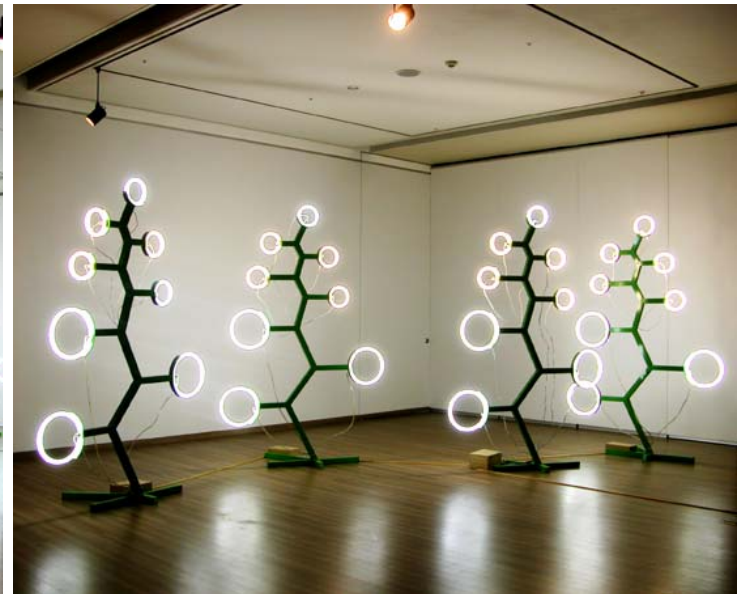


사진 5> 전시 작품 ‘Transnature’ (자연에 머무르기) 중 ‘Spotree’  
사진촬영/ 페클레한국공식지사 LISOPHE



사진 7> 마탈리 크라세(Matali Crasset)의 전시 작품 'Transnature' (자연에 머무르기)  
사진촬영/ 페클레한국공식지사 LISOPHE





사진 8> 마탈리 크라세(Matali Crasset)의 전시 작품 'Transnature' (자연에 머무르기)  
사진촬영/ 페클레한국공식지사 LISOPHE

### ‘프랑스를 대표하는 실험적 디자이너그룹’- 5.5 디자이너스(5.5 Designers)

4명의 젊은 디자이너로 구성된 5.5 디자이너스(5.5 Designers) 그룹은 기존 제품의 새로운 용도 및 관점의 변화와 감각적인 디자인 개발을 통해 대중들의 큰 반향을 이끌어내고 있다. 유머러스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개인적인 에디션에서부터 유명 브랜드와의 합작 프로젝트까지 일상의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전환시키는 디자인으로 2006년 파리의 ‘올해의 디자이너 상’을 수상 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Reanim’(소생)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영속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상업적 목적으로 가공된 생활 속 소비적 오브제들의 급증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며 소생시키기, 회복시키기, 재생시키기, 재고하기, 봉대감기, 치료하기 등을 통해 디자이너는 오브제들의 의사가 되고 훼손된 물질을 창작 대상으로 사용한다. ‘Reanim’(소생) 프로젝트에서 수명을 다한 생활용품이 새로운 기능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마치 병원의 수술과정과 같이 연출하고 그 과정을 퍼포먼스로 엮어 전시물과 함께 비디오로 상영한다.



사진 9> 5.5 디자이너스(5.5 Designers) 의 전시 작품 ‘Reanim’ (소생)  
사진촬영/ 페클레한국공식지사 LISOPHE





사진 10> 5.5 디자이너스(5.5 Designers) 의  
전시 작품 'Reanim' (소생)  
사진촬영/ 페클레한국공식지사 LISOPHE

## <전시후기>

우리들이 현재 공유하고 있는 공간과 일상 속 제품들에 대한 관점을 다양한 각도로 해석한 이들의 작품을 통해 관점의 차이와 그 관점을 풀어가는 실험정신이 작품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국내 디자이너들의 실험정신과 작품의 대한 열정이 점점 열기를 더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요즈음 한국 현대 디자인을 통해 글로벌 디자인의 개념과 흐름을 조망하는 전시회가 가까운 미래에 이곳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열릴 것에 대한 기대를 가져 보며 다시 서울로 발걸음을 되돌린다.